창

2026. Vol. 68

窓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Honam Foundation

초록믿음강진

강진군 직거래 쇼핑몰

초록믿음의 실현방법

강진군	직거래 활성화 조례 확정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원센터	품질 점검 활동, 농어업인 조직화, 마케팅 교육, 맞춤형 지원사업 우수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 소비자 초청 행사 실시
농어업인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춰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경쟁력 강화
도시 고객	강진군과 강진 농업인을 믿고 상품 구매, 주변에 소개

강진 로컬
농특산물
직거래
쇼핑몰

초록믿음강진

상생과 혁신으로
광산을 새롭게 시민을 이롭게!

지속가능 광산

광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광산사랑상품권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지역화폐로
모바일앱(chak)으로 간편하게 가맹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QR 및(연동) 카드 결제 지원(2026년 발행 예정)

신청자격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

- 광주상생카드 가맹점 등록 업소도 광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신규 등록 신청 필수!

제외 : 연매출 30억 초과, (준)대규모점포(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SSM 등) 유흥·사행업소 등

신청방법

지역상품권 착(chak) 어플로 신청 가능!

❶ 어플 설치 및 회원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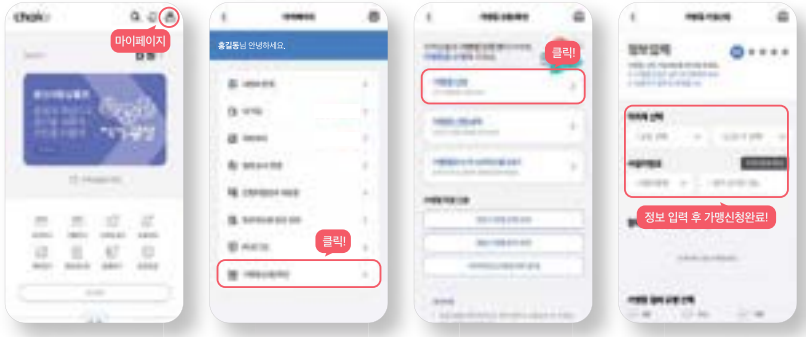
플레이스토어에서 키워드(chak, 착, 지역상품권) 검색 ▸ 앱 설치 및 회원가입

안드로이드
지역상품권
착(chak) 설치

애플
지역상품권
착(chak) 설치

❷ 가맹점 신청

chak 앱 ▸ 마이페이지 ▸ 가맹점 신청/확인 ▸ 정보 및 이용약관 동의 등 입력 ▸ [가맹신청완료] 클릭



문의전화

광산구청 시민경제과 (☎ 062-960-4885)

광산구

LH

#당신이 주인공인 대한민국을 짓습니다

출근길부터 주거공간까지
LH는 당신의 삶을 빛내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두환 | 공존.2025.90x150cm.캔버스에 아크릴

예부터 이어온 남종화의 정신부터
80년 민주화운동의 민중미술,
그리고 영상미술과 현대미술까지 이어지며
공존해온 도시 광주를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켜온 무등산을 중심으로
시대마다 대표하는 이미지를 화면에
배치해 그 의미를 작품에 담았습니다.

2025 인문·예술·테크 축제 「로컬: 뿌리다」의
로컬 LIVE 드로잉에 참여한 이두환 작가의 작품으로,
임원 투표를 통해 이번 호 표지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발행일	2026년 6월 8일
발행인	노경수
편집위원장	송재한
편집위원	양인자 이묘숙 이현식
기획	편집위원회
발행처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주소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금남로 3가, 삼호빌딩 2층
전화	062-234-2727
FAX	062-234-2728
홈페이지	www.rcef.or.kr

Contents

05 특집기획

전남·광주 문화 예술 생태계에 관한 소고_전고필
통합의 시대, 전남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다시 묻다_김병희
AI 시대, 호남 문화콘텐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_정동한
지방소멸시대, 청년 문화예술인 육성이 문화예술의 미래다_임영언
시각예술 인프라의 산업화 방향_장현우
전남·광주의 문화 생태계 허브, 도서관_박주현

24 문화리뷰

기억을 설계하고, 시간을 복원하다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참여를 회상하며_신용주

27 맛·잇는·공간

쉼이 있는 공간 : 봄날의 월봉서원에서 '너'와 '나'를 묻다_이현식
역사적 공간 : 광주중앙초등학교로의 시간여행_임선화
지역의 맛 : 광주 궁전제과 – 지역의 얼굴, '빵'이 되다_편집부
사람을 잇다 : '보들탑' 여정을 마치고_천득염
이야기를 잇다 : 나는 계속 광주_양인자

42 재단·회원 소식

46 함께하는 사람들

경계를 넘어,
서로의 결로 빚어낼 하나의 문화

송재환_재단 편집위원장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이름으로 새롭게 호명된 지금, 우리는 행정의 경계를 넘어 문화의 지평을 다시 그려야 하는 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이름은 단순한 결합의 선언을 넘어, 서로 다른 시간과 기억, 그리고 문화의 결을 어떻게 조화롭게 엮어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광주는 오랜 세월 민주와 인권, 그리고 예술의 뜨거운 숨결을 품어온 도시이며, 전남은 자연과 삶이 어우러진 깊은 서정 속에서 고유한 문화의 뿌리를 지켜온 공간입니다. 이 두 흐름이 만나는 지점은 단순한 확장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이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서로 다른 결이 스며들 때, 문화는 비로소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설렘과 기대를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조심스럽고도 진지한 물음을 던집니다.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지역 고유의 목소리는 온전히 보존될 수 있을 것인가. 중심과 주변의 균형은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행정의 효율이 문화의 다양성을 잠식하지는 않을 것인가. 문화는 결코 하나의 틀로 재단될 수 없는 생명의 영역이며, 작은 지역의 이야기와 예술적 실천들이 모여 비로소 살아 숨 쉬는 유기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빛날 것인가'입니다. 문화정책은 규모의 확장이 아니라 관계의 확장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서사와 예술적 자산을 온전히 존중하고, 이를 섬세하게 이어주는 다리 놓기가 필요합니다. 창작자와 시민, 도시와 지역이 수평적으로 마주하는 구조 속에서만 통합의 의미는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화는 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서 길어 올려진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이번 통합의 첫 걸음은 제도의 설계보다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역 곳곳의 작은 공연장과 마을의 예술, 사라져가는 전통과 새롭게 피어나는 창작의 현장들이 서로를 비추며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창'을 연다는 것은 바람을 들이는 일이자, 동시에 세상을 향해 시선을 여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는 이 창은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비추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통합이라는 변화의 문턱에서 우리는 더 넓은 가능성과 더 깊은 사유를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여정이 단순한 행정의 결합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품은 채 더 큰 문화적 울림으로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문화예술이 가장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를, 조용히 그러나 깊이 기대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예술의 미래를 묻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통합은 행정과 경제의 결합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을 연결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고민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창」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를 앞두고 문화예술 생태계, 제도와 콘텐츠, 청년과 시민문화, 공간과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를 진단하고 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집이 통합이 가져올 문화예술의 변화와 과제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편집부

• 목차 •

01 전남·광주 문화 예술 생태계에 관한 소고_전고필
02 통합의 시대, 전남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다시 묻다_김병희
03 AI 시대, 호남 문화콘텐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_정동한
04 지방소멸시대, 청년 문화예술인 육성이 문화예술의 미래다_임영언
05 문화수도 전남광주특별시 : 시각예술 인프라의 산업화 방향_장현우
06 전남·광주의 문화 생태계 허브, 도서관_박주현

01

전남·광주 문화 예술 생태계에 관한 소고

전고필_영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광주비엔날레 전경

오래전 해양도라는 지명의 전라남도가 있었다. 그 이름은 이제 해양에너지라는 도시가스회사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할 때 그 명칭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을 때 "해양도"라는 이름이 호명되지 않고 그저 광주가 먼저거나 전남이 먼저거나 앞자리에 쓰임을 주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못내 아쉬움이 있었다. 서해와 남해에 연접하여 대륙과 해양의 첫 관문인 지리학적 위상보다는 이미 움켜쥔 광역지명을 수성하는데 급급하는 현실의 상황은 여느 지역보다 문화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선도적이라 말할 수 없는 작금의 문화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비엔날레나 전남수묵비엔날레의 뿌리를 보면 대륙의 문화와 해양의 문화가 진도군이나 신안군 같은 곳에서 유입되고 점철되어 다시 육지로 재발신 되며 어느 특정한 곳에서 벅차게 피어오름을 확인하게 한다. 그것이 광주이고, 목포라는데 이견을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접변이 일어났던 현장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사이에 문화사적인 일들도 외면하고 일을 벌이는 곳의 지역브랜딩을 강조하는 문화세탁에만 열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그 방증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이고, 문화도시 목포라는 아이러니다.

문화는 고급도 하급도 존재하지 않고, 중심도 변방도 따로 있지 않다. 스스로 생성된 자연이라는 공간과 그것을 유유히 지나가는 시간과 그 사이에 관여하는 인간, 이 세 축으로 형성된다. 인간이 자연과 시간에 새긴 터무니가 바로 문화인데, 이 지역의 문화는 본디의 것에 대한 자부도 애정도 버리고 현재의 것에만 집착하는 태도로 점철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통합될 양지역의 문화현장을 바라보는 마음은 씁쓸하기 그지없다. 내륙의 도시 광주사람들은 해양인의 관점에서 육지와 섬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고, 해양의 사람들은 육지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을 터득함이 필요하다. 돌아보면 전남의 문화환경은 척박하기 그지없었다. 민속문화의 보물창고로 알려진 진도 같은 경우도 전승예술인을 제외하면 삶 속의 문화원형은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몇 가지 이유를 보자면 먼저 생산양식의 변화에 기인한다. 자급자족을 위해 가족공동체와 마을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부대끼던 옛적 삶은 고된 노동으로부터 시름을 극복하고자 노동요를 자연스럽게 불러댔다. 하지만 농업이 대규모화되고, 기계화 되면서 손을 맞잡고 하던 일들이 사라져갔다. 거기에 농어촌사회의 초고령화와 청년인구의 역외유출은 설상가상으로 전통적인 대동놀이의 소멸을 불러왔다. 또한 전통의례의 현대화도 지역문화의 소멸을 불러왔다. 묘장제의 사회가 화장제로 바뀌면서 상여는 자취를 감추었고, 씻김굿과 같은 의례는 특별한 인물이 아니면 무대에서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어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상으로 사용하던 생활용품들 즉, 지역특산품도 이제는 중요무형문화재에 등록된 분들의 손끝을 거쳐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대나무를 활용한 공예나 옻칠, 황칠, 목기, 반상, 천연염색 등이 마을 곳곳의 삶 속에서 이뤄졌던 것들은 이미 옛 이야기가 되었다.

광주에서는 다방에도 그림이 있고 목포는 집집마다 그림이 있고, 진도에는 화장실에도 그림이 있었다는 20여 년 전의 이야기는 이제 변색된 이발소 그림 같은 이런저런 디자인 소품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버렸다. 하니 문화예술의 생태계가 과연 온전할 턱이 있겠는가 싶다. 17년 15년 차 된 광역문화재단이 있어 그나마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으로 예술생태계를 부양하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재단은 지역의 예술인력들을 발굴하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왔으며, 청년 예술가들이 전업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사업도 펼치고 있다. 혹여 이로부터 소외된 이들이나 힘들어하는 작가들을 위해 예술인 등록을 돕고 있으며, 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지원사업에도 힘을 거들고 있다. 사회적 돌봄의 한 형태로서 문화예술교육이 학교와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고, 길 위의 인문학, 구석구석문화배달 같은 사업도 재단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관심과 더 든든한 지속성을 강구할 대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갈증을 느낀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준거하여 기초지자체에도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재단이 생겨나고 있다. 2011년 영암문화재단을 필두로, 강진, 담양, 해남, 목포, 순천, 화순, 광주 동구 등에 이어 고흥도 곧 출범할 예정이다. 기초재단이 순수한 문화창작과 지원사업이 이뤄지면 광역과 더불어 줄탁동시의 의미있는 현장성을 가질 것인데, 간혹 행정의 대체재이거나 관광마케팅으로 주력화 하면 문화부분에서는 퍽퍽한 한숨만 쉴 수밖에 없다. 아울러 지역예술현장에 대한 지원사업의 재원을 행정에서 관행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특정 단체나 예술인에게 집중되어왔던 왜곡된 현상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바로 잡을 기회도 쉬이 오지 않는다. 하니 기초재단이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위상을 세우는 것이 예술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광역재단은 그간 시와 도의 문화 관련 부서가 진행해왔던 문화예술분야의 지원사업도 촘촘히 들여보며, 광역으로 이양받아야 할 몫을 찾아와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심사의 불공정성이나 특정 단체의 독식 등이 야기한 문제점을 행정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제 좀 더 미시적으로 들여다 본다. 전남재단의 지원사업 심사를 하다보면 예술인과 기획자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을 실감한다. 목포, 순천, 고흥, 광양, 해남에만 문화예술생태계가 살아있는 듯하다. 전남재단에서 2011년부터 22개 시군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력양성 사업을 지금까지도 전개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인 지역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다. 대체 그 지역에는 문화예술인들이 없는 것이 아닌데 움직임이 없다. 간헐적으로 한 두 단체나 개인이 응모하긴 하지만 문턱은 이미 높아진 상황이다. 이제 지역할당제라도 하고, 컨설턴트라도 붙여서 그 지역이 살아있고, 함께 문화로 더욱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제 학교로 돌아 가보자. 기초예술을 가르치는 대학은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거나 폐과를 하고 있다. 예향과 문화중심도시를 외치는 전남광주특별시에 미래세대들이 성장할 상아탑이 무너지고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부에만 이를 맡겨선 안되고 지방정부가 나서야 할 차례다. 광역재단도 발 벗고 나서야 할 일이다.

아울러 광주비엔날레와 수묵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와 같은 대형 미술 행사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까지 보유한 도시에 이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총괄하는 지역의 대표 운영자와 기획자가 부재하다는 사실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들은 이런 도시에 무엇을 기대하고 지역에 머물겠는가?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의 실험장이자 메뚜기처럼 이곳저곳을 널뛰기하는 수단으로 지역의 자원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특별한 과정이라도 만들어서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하는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 그들의 안목이 지역문화를 지켜내는 커다란 자산이 된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고 좋은 인재가 나올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묵묵히 키워내야 한다. 이제 출범하게 될 특별시의 수장과 통합될지 아직 불투명하지만, 광역재단의 임직원들이 더 크고 촘촘한 안목과 전문성, 헌신성과 미래에 대한 예지력으로 지역예술생태계를 톺아 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02

통합의 시대, 전남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다시 묻다

김병희_前 순천문화도시센터 센터장직무대행

최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문화정책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러나 문화의 입장에서 이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전남의 문화예술 생태계는 하나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 현장이기 때문이다. 전남은 22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며, 농촌과 어촌, 산업도시와 관광도시, 섬과 내륙이 공존한다. 같은 전남 안에서도 문화가 작동하는 방식, 주민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 예술가가 정착하는 방식은 제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시대일수록 전남의 문화정책은 더 섬세해져야 한다.

전남은 하나의 문화로 설명될 수 없다.

필자는 광주, 담양, 순천, 여수, 강진 등 광주·전남의 여러 도시에서 문화 관련 실무를 경험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한 것은 '전남'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다른 생태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지역은 오랜 생활문화의 결이 강하고, 어떤 지역은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문화적 돌파구가 필요하며, 어떤 지역은 관광도시의 외형은 갖추었지만 그 안의 문화적 내실이 더 요구된다. 따라서 전남의 문화정책은 평균값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차이를 인정하는 방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장소성'이 곧 전남의 경쟁력이다.

담양에서 해동주조장 문화 재생 초기 모델을 함께 만들며 다시 확인한 것은, 전남의 문화는 외부에서 가져온 형식보다 지역의 고유 자원에서 더 강하게 살아난다는 점이었다. 해동주조장이라는 장소, 막걸리라는 기억, 그 공간에 축적된 생활의 흔적은 단순한 시설 재생을 넘어 문화적 재생의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전남 곳곳에는 이처럼 아직 충분히 해석되지 않은 자원들이 남아 있다. 과거 도시재생의 언어로 정리되었던 흔적들을 이제는 문화적 재생의 언어로 다시 읽어낼 필요가 있다. 통합특별시가 지향해야 할 전남의 문화정책은 대형 문화시설을 늘리는 방

식이 아니라, 이런 장소의 고유성을 발굴하고 해석하는 역량을 키우는 방향이어야 한다.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시민이 설계한 문화가 진짜 문화가 된다.

순천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며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문화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힘이었다. 시민이 문화콘텐츠의 주제와 방식, 심지어 실행의 세부 조건까지 함께 설계할 때 문화생태계는 훨씬 단단해진다. 그런 경험은 문화가 행정이 공급하는 프로그램에 머물지 않고, 시민이 스스로 운영 원리를 만들어가는 구조가 될 때 지속가능해진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문체부의 1차 문화도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사업 기간을 마쳤고, 현재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체계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에서는 순천과 진도가 그 흐름 안에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지정' 이후가 아니라'이후의 이후'를 설계하는 일이다. 순천의 문화콘텐츠·애니메이션 자산, 진도의 국악과 민속문화 자산을 해당 도시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전남 전체의 학습 자산으로 확장해야 한다. 그래야 한 도시의 성과가 한 도시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는다.

'작은 도시의 실험'이 전남의 미래를 앞당긴다.

강진은 군 단위의 작은 지역이지만, 반값여행 정책과 전남음악창작소 운영, 음악도시 추진같은 실험을 통해 문화가 지역 활성화의 실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생태계가 약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작은 지역일수록 행정과 주민, 현장이 더 빠르게 연결되며 문화정책의 실험이 생활 속에서 구현되기도 한다. 인구감소 시대에 전남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소도시의 선도 사례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행사보다, 관계를 오래 남기는 구조를 만드는 일, 정주인구만이 아니라 관계인구와 생활인구를 함께 바라보는 문화정책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남도 역시 생활인구를 지역 활력의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관련 통계가 보통교부세 산정에도 반영된다. 문화정책은 이제 인구정책과 분리된 의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강진 음악창작소

"통합의 성공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살리는 것이다."

산업 전환기, 문화는 미래 성장동력이다.

여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이자 산업도시다. 다만 현장에서 보면 여수는 오랫동안 뛰어난 자연경관과 산업 기반이라는 강한 자원에 기대어 문화생태계를 치열하게 재구성할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껴온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여수는 2025년부터 2027년 4월까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2026년에는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시행령까지 시행되며 구조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문화예술 생태계는 주변 장식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 산업과 정체성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 여수의 과제는 관광자원의 소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억과 산업의 역사, 바다와 항만의 감각을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전환하는 일이다. 문화는 산업 위기 이후를 준비하는 가장 느리지만 가장 오래가는 투자일 수 있다.

"통합특별시 시대, 전남의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통합특별시가 현실화된다면 문화정책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광주의 도시적 감각과 소비 중심 구조를 전남 전체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광주와 전남은 연결되어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 전남의 문화정책은 생활권의 크기, 산업 구조, 인구 밀도, 교통 여건, 섬과 해양의 조건까지 함께 고려하는 다층적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촌형 문화정책, 어촌·섬형 문화정책, 산업전환형 문화정책, 관광심화형 문화정책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도시 이후의 후속 체계, 소도시 우수사례의 공유 구조, 중간지원 조직과 지역 기획자 양성, 생활인구를 고려한 순회형 문화유통망까지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끝으로...

전남의 문화예술 생태계는 결코 주변부가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대한민국 문화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를 가장 앞서 보여주는 현장에 가깝다. 인구감소, 생활인구, 산업전환, 지역 고유성, 시민 거버넌스, 소도시 실험이라는 시대적 화두가 모두 전남의 현장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합특별시의 문화정책은 전남을 광주의 배후지로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전남 자체를 하나의 창조적 실험장으로 인정하는 태도에서 시작해야 한다. 통합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크게 합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다른 생태계를 섬세하게 살려내느냐에 달려 있다. 전남의 문화정책은 바로 그 질문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03

AI 시대, 호남 문화콘텐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넘어, 창업지원기관 협력과 AI 융합 문화생태계로

정동한_(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석

현장에서 느낀 문제의식

필자는 30여년 이상 민간기업과 국가기관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일해 왔다. 응용프로그램 개발부터 경영정보 총괄, 디지털포렌식 조사, 여론조사 빅데이터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체득한 것은, 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가 클수록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에 들어서면서, 그 괴리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퍼주기식 예산 지원,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콘텐츠 지원사업은 기업에 예산을 나눠주는 데 편중되어 있다. 사업 공고를 내고, 선정하고, 집행하고, 정산하는 제도권의 틀에 박힌 절차가 반복될 뿐, 정작 지역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창의적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전략적 사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퍼주기식 지원 구조는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보다 보조금 의존 체질을 고착시키고, 수도권과의 콘텐츠 산업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광주는 2025년 신생기업 36%는 1년안에, 64% 가까이는 5년안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도는 신생기업 34.4%는 1년안에, 62%가량은 5년안에 사업을 접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다만, 창업 지원을 받은 사업체의 5년 생존율은 59.1%로 높은 반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28.2%에 불과해 지원 정책이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끼게 되었다.

창업지원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

호남권에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기관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2002년 설립 이래 콘텐츠·ICT 융합 산업 육성을 담당하며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와 광주콘텐츠코리아랩 등 제작·창업 인프라를 운영해 왔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JCIA)은 2018년부터 19개 시군과 함께 43개의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며 최근에는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은 첨단3지구에 4,269억 원 규모의 AI 집적단지를 조성해 CES 2026 혁신상 25개 수상이라는 성과를 견인했다. 광주디자인진흥원(GIDP)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로 디자인-제조-콘텐츠의 접점을 모색해 왔고, 광주문화재단·전남문화재단은 예술인 지원과 5·18 정신 계승, 시민 문화향유의 토대를 책임진다. 그 정점에는 5조 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있다. 2024년 한 해 359만 명이 방문하고 자체 창·제작 콘텐츠 비중이 79.4%에 이른다는 성과도 발표됐다.

수치만 보면 호남은 결코 빈약하지 않다. 그러나 현장의 풍경은 다르다. 첫째, 기관 간 칸막이가 너무 높다. 같은 기업이 GICON, JCIA, ACC, AICA에서 비슷한 '제작비 지원' 사업을 따로따로 신청해 받아 가는 일이 흔하고, 기업은 본업보다 사업계획서 쓰기에 매달리게 된다. 둘째, 진흥원과 재단의 역할이 모호하다. 문화재단이 콘텐츠 제작지원으로 넘어오고 진흥원이 단발성 행사에 자원을 쓰면서 사업의 '주인'이 흐려진다. 셋째, 광주와 전남이 따로 논다. 같은 남도 문화권을 두고 두 진흥원이 공동IP나 공동 펀드를 운영한 사례가 거의 없다.

가장 뼈아픈 지점은 ACC다. 359만 방문객은 자랑이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자체 콘텐츠가 드물다", "수도권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선에 그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5·18, 남도 판소리, 무등산, 다도해, 차와 도자, 의병과 동학, 호남의 원석은 차고 넘치지만 정작 그것을 글로벌 의제와 잇는 작업은 빈곤하다. 비싼 그릇은 갖췄으나 그 안에 담길 호남의 음식이 보이지 않는다. 창업지원기관의 역할 재정립이란, 보조금 창구에서 벗어나 기관 간 사일로를 허물고 호남의 원형 자원을 발굴하며 기업의 자생력을 길러내는 큐레이터·프로듀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KPI도 '집행률·사업 수'에서 '5년 생존율, IP 매출, 글로벌 진출, 후속 투자 유치액'으로 바뀌어야 한다.

AI와 문화콘텐츠의 융합, 호남의 새로운 길

AI는 호남에 양날의 칼이다. 한쪽 날은 기회다. 광주는 AICA를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 GPU, 실증 인프라, 시민·기업 AI 바우처라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토대를 갖췄다. 다른 한쪽 날은 위협이다. 생성형 AI로 콘텐츠 제작 단가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제작비 지원'이라는 전통적 보조금 모델 자체가 무력해지고 있다. 한 명의 창작자가 일주일 만에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과거 수천만 원 지원사업을 능가하는 시대다.

호남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AI 인프라(AICA)와 콘텐츠 IP(GICON·JCIA), 실감 제작역량(GCC), 디자인·상품화(GIDP), 문화 원형(ACC·문화재단)을 하나의 가치사슬로 묶는 것이다. AICA의 GPU 위에서 남도 스토리뱅크의 설화·민담이 학습되고, ACC의 ACT 페스티벌에서 인터랙티브 작품으로 발표되며, GIDP가 굿즈와 IP로 산업화하고, 문화재단이 시민 향유로 환원하는 흐

름이 만들어질 때 호남은 '수도권을 따라가는 지역'에서 '수도권이 가져다 쓸 수 없는 원본을 가진 지역'이 된다. ACC가 2025년 12월 선보인 'AI 기반 아시아 신화·설화 체험 전시'가 그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정작 호남의 마한·백제·동학·5·18 서사가 빠진다면 또 한 번 '땅만 빌려준 셈'이 될 것이다.

세 가지 융합 트랙을 제안한다. 첫째, '호남 컬처-AI 데이터셋' 공동 구축이다. 일곱 기관이 보유한 판소리 음원, 무형문화재 영상, 5·18 아카이브, 지역 설화, 전통 문양·도자 이미지를 정제해 개방형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호남이 한국 문화 AI의 학습 원천을 선점하는 일이다. 둘째, '호남 IP-AI 스튜디오' 운영이다. GCC의 버추얼 프로덕션에 생성형 AI를 결합하고 GIDP의 상품화 역량을 붙여, 한 IP가 웹툰→애니메이션→굿즈→체험전시→글로벌 라이선싱까지 한 지붕 아래 진행되는 원스톱 구조를 만들자. 지원 단위는 기업이 아니라 'IP'여야 한다. 셋째, 'AI 활용 창작자 전환 교육'의 전면화다. 보조금이 아니라 역량이 살아남는 시대다. GICON·JCIA·AICA·GIDP가 공동 인증하는 '호남 AI 크리에이터' 트랙을 만들어, 흩어진 인력 양성 실적을 결집해야 한다.

결론: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으로의 전환

호남 문화콘텐츠 산업의 위기는 자원 부족이 아니다. ACC·GICON·JCIA·AICA·GIDP·광주문화재단·전남문화재단이라는 일곱 기둥이 한 지역에 동시에 서 있는 사례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 진짜 위기는 일곱 기둥이 각자 다른 지붕을 떠받치고 있다는 데 있다. 같은 기업, 같은 자원을 두고 일곱 개의 사업 공고가 따로 나가고, 일곱 개의 정산 보고서가 따로 들어오는 분절된 구조, 광주 신생기업의 64%, 전남 62%가 5년 안에 문을 닫는 현실은 그 결과다.

이제 정책의 무게중심이 '기업에 돈을 주는 정책'에서 '기업이 살아남는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으로 옮겨가야 한다.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호남권 문화콘텐츠 협의체의 상설화다. 일곱 기관이 분기별로 모여 사업 중복을 조정하고 공동 IP를 발굴하는 실무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둘째, 광주·전남 통합 콘텐츠 펀드 조성이다. 두 시·도가 각자 운용하는 자원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행정통합의 가장 손쉬운 시범 사업이다. 셋째, 성과지표의 전면 개편이다. '집행률·사업 수' 대신 '기업 생존율, IP 누적 매출, 후속 투자, 창작자 자생률'로 바꿔야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 넷째, '호남 원형 자원 아카이브'의 공동 구축이다. 5·18, 남도 판소리, 무등산, 차와 도자, 의병·동학·민주항쟁의 정신사를 AI 학습 가능한 공공재로 개방해야 한다. 콘텐츠는 결국 원형의 싸움이고, 호남은 그 원형이 가장 풍부한 곳이다. 다섯째, 현장 실무자 중심의 정책 환류 채널이다. 사업을 신청해본 창작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본 전문가의 목소리가 다음 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좋은 정책은 돈을 잘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과 자원을 잘 잇는 정책이다. AI 시대의 호남은 부족해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잇지 못해 흩어지고 있다. 일곱 기둥을 하나의 지붕으로 묶을 수 있다면, 호남은 더 이상 보조금을 기다리는 지역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원본을 공급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 그 전환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 AI가 모든 산업의 문법을 다시 쓰고 있는 이 순간이다.

04

지방소멸시대, 청년 문화예술인 육성이 문화예술의 미래다

임영언_조선대학교 교수

서론

전남광주는 올해 7월 대한민국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수도 조성 등 통합특별시의 핵심 비전 실현을 위한 법령·특별시 조례 정비, 재정 확보, 권한 이양, 대응계획 수립 등 제도 기반 구축 방안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 곧이어 출범하게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문화예술 분야는 단순한 문화행정 통합을 넘어, 광주의 도시형 예술·콘텐츠 역량과 전남의 자연·전통·해양·관광 자원을 하나의 광역 문화생태계로 재편하는 것이 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확충은 통합 특별시의 새로운 비전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문화예술 분야의 현황을 진단하고, 지방소멸시대에 청년 예술인과 이주·다문화 예술인 육성의 중요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예술 현황 진단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전남광주는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하나의 남도 문화권을 형성하고 공유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광주와 전남은 각각 분리되면서 광주광역시의 문화예술은 민주·인권·예술의 상징성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미디어아트, AI 기반 콘텐츠 창작 역량을 갖춘 도시형 문화적 거점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반면에 전남지역은 남도 음식, 판소리와 국악, 농어촌 공동체 문화, 섬과 해양, 생태·치유 관광, 전통축제 등 생활 문화와 자연 문화자원이 풍부하게 어우러진 문화예술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전남광주가 분리되고 두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도 행정적으로 각각 다르게 추진되면서 통합적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2]

광주시의 정책은 문화시설과 창작 인력 양성에 집중해 왔으나 소비시장과 체류형 관광 기반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한계를 보였다. 전남지역은 관광·자연·전통문화 자산은 풍부하지만, 콘텐츠 산업화와 청년 창작 생태계가 취약했다.

따라서 이번 통합특별시 문화예술 정책의 핵심은 지역의 강점을 살려 “광주는 만들고, 전남은 확장하며, 통합특별시는 세계로 연결하는 구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내면 문화예술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213개 후속 과제 점검
: https://baronews.net/news_proc/news_contents.jsp?ncd=799636 (검색일 2026.05.22.).
2)전남광주는 1986년 광주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광역시가 된 이래로 40년간 분리되어 있었음.
: https://blog.naver.com/minthouse01/224201386928(검색일 2026.05.24.).

그러면 먼저 전남광주의 문화예술 분야의 현행 주요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전남광주의 문화행정의 분절성 문제이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이 행정적으로 별도의 문화재단, 관광조직, 축제 지원체계, 예산 구조를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기 십상이었고, 광역 단위의 브랜드 전략이 부족하였으며, 문화예술 자원의 공동 활용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였다. 둘째, 문화예술의 지역 간 격차이다. 광주 도심에는 공연장, 전시장, 창작공간, 교육기관이 집중되어 있지만, 반면 전남의 농어촌·도서 지역은 문화 접근성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이는 생활 문화 향유권의 불균형으로 이어졌으며 이번 통합특별시에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셋째, 실용성 있는 문화산업화의 부족이다. 예로부터 전남광주는 남도 문화권이라는 강한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활용한 영상, 음악, 게임, 웹툰, 공연, 관광상품, 캐릭터, 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확장하는 실용적인 산업화 체계가 매우 부족했다.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확장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넷째, 매우 심각한 문제는 청년 예술인과 창작자의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 문제이다. 그동안 지방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문화산업화 구조 속에서 지역 청년 예술인은 창작 기회, 투자, 유통망,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을 이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음 〈표 1〉과 같이 문화예술인을 지역 정주와 연결하지 못하면 청년의 수도권 이탈은 가속화되고 통합특별시의 문화정책도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3]

〈표 1〉 한국 주요 도시 청년인구 변화와 전남광주의 현황(2024년 기준)[4]

주요 도시	전체 인구수(명수)	청년 인구수(명수)	지역별 인구수 대비 청년 인구 비율(%)	전체 청년 인구수 대비 지역별 청년인구 비율 (%)
서울	9,371,930	2,207,539	23.55	22.12
부산	3,282,751	599,873	18.27	6.01
대구	2,367,803	443,902	18.75	4.45
인천	3,009,873	603,701	20.06	6.05
대전	1,441,119	312,451	21.68	3.13
광주	1,414,254	292,718	20.70	2.93
울산	1,100,609	199,160	18.10	2.00
경기	13,654,710	2,753,463	20.16	27.59
강원	1,522,952	254,589	16.72	2.55
충북	1,591,201	289,674	18.20	2.90
충남	2,134,618	367,353	17.20	3.68
전북	1,746,912	290,402	16.62	2.91
전남	1,795,717	273,787	15.25	2.74
경북	2,545,421	391,768	15.39	3.93
경남	3,237,140	513,575	15.87	5.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예술 정책과 발전 방향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문화예술 정책은 기존 남도 문화의 부활과 AI 미디어 문화콘텐츠의 융합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서울 중심의 문화산업 구조에 대응하여 남도의 독자 문화권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가령, 광주는 AI 콘텐츠, 미디어아트, 국제예술, 민주 인권 문화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전남은 전통예술, 남도 음식, 섬·해양 문화, 생태·치유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상호 강점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표 2〉 전남광주 문화예술 단체의 특징 비교[5)]

특징	광주	전남
중심 분야	현대예술·콘텐츠	전통·생활 문화
대표 구조	전문 예술단체	공동체 단체
운영 방식	프로젝트 중심	행사·축제 중심
국제교류	활발	제한적
청년 예술	활성화	취약
생활 문화	상대적으로 약함	강함
산업화	비교적 높음	낮음
문화정책	창작·콘텐츠 중심	지역균형 중심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남광주의 문화예술 정책으로 그동안 보조금과 행사 중심의 지원에서 산업·복지·교육·관광을 결합한 통합적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남광주의 예술인이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정체성을 창출하는 핵심 주체임을 인정하고 문화시설을 단순 공연·전시 공간을 넘어 창작, 교육, 유통, 관광, 지역공동체 활동의 플랫폼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AI 산업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광주는 AI 기반을 활용해 AI 영상 제작, 미디어아트, XR 공연, 디지털 박물관, 온라인 전시, 지역 문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남은 전통문화와 자연 자원을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하여 산업화를 추진한다면, 국내외 관광객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문화예술 분야는 통합을 통해 가장 큰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 중의 하나이다. 즉, 광주가 가진 창작·기술·도시 문화 역량과 전남지역의 전통·생태·해양·관광 자원을 결합한다면, 전남광주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지역 문화권을 초월하여 대한민국 남도의 문화 수도이자 동시에 전 세계 '글로벌 K-컬처 고향'으로서 잠재력 있는 통합특별시로 성장할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찾아온 남도 문화 천년의 기회를 이번에 살리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다.

결론적으로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는 전남광주의 행정 통합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권역별 균형 배치, 문화산업화, 청년 창작자 정착, 생활 문화 확대, 시민참여 거버넌스 등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남광주의 문화예술분야가 더 이상 시민들의 부가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정체성, 지역경제 성장, 관광 활성화, 삶의 질을 좌우하는 통합특별시의 핵심 자산임을 인식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멸시대 이를 추진할 동력을 가진 미래를 주도할 청년 예술인들의 양성에서 찾고 이들이 정주하는 '청년예술도시'의 육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앞두고 간과해서 안 될 점은 증가하는 15만 명에 달하는 이주다문화 배경 출신 청년의 증가와 이주다문화 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이다. 이제 통합특별시의 출범과 더불어 남도 문화예술을 추동할 청년 예술인을 중심으로 그동안 전남광주이 축적한 문화적 역량, 문화예술 시설 및 자원을 토대로 새로운 천년을 위해 재구성할 때가 되었다.

3)광주일보 2026-04-21, 전남 청년 70% 고향 이탈, 광주도 인구 유출: https://v.daum.net/v/3cWfwkB3T7(검색일 2026.05.25.).
4)김재원 외(2024)「청년세대는 무엇을 쫓아 이동하는가: 지방소멸시대의 청년과 문화예술」, 『문화와 사회』 32(3), pp.7-52.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만 제시하였음.
5)이 표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하였음. 통계청(2024)에 의하면 광주의 경우 청년인구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24.8%), 2010(23.69%), 2012(23.23%), 2014(22.76), 2016(22.10%), 2018(21.42%), 2020(21.44%), 2022(21.21%), 2024(20.65%) 등 점차 감소 추세로 주요 요인은 청년세대의 문화 기호 및 취향을 위한 노력 부족, 광주시의 장소정체성 확립 부족 등으로 나타났음.

05

문화수도 전남광주특별시 : 시각예술 인프라의 산업화 방향

장현우_문화예술융성포럼 기획자

리움미술관 '칼레의 시민' 소장품 전시 작품

전라남도 광주는 비엔날레, 아시아문화전당, 아트광주 등 세계적 수준의 시각예술 인프라를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미술시장이 부재하여 그 잠재력은 한낱 빛바랜 꿈에 불과할 수 있다. 광주가 문화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이 완성되기까지 향후 10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문화예술과 관광을 융합한 현재형 신산업의 창출이 절실하기에 미술시장 활성화는 예술계 뿐만 아니라 광주시에도 중요하다. 지역 문화 자원의 개발을 통해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외부 관광객이 광주를 찾도록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미술시장 규모는 Art Basel과 UBS가 공동 발간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약 596억 달러(USD 59.6 billion)로 추정된다. 이는 2024년의 575억 달러 대비 4% 성장한 수치로, 2년 연속 하락 후 반등한 결과이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83조~86조 원 정도가 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권의 많은 관심은 AI, 재생에너지, 바이오와 같은 미래형 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현재형 산업인 문화예술관광 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에 따라 광주가 수도권과의 문화 수준 격차도 줄이고, 문화 중심의 신산업을 창출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광주 예술계 현안을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

광주시립미술관과 중외공원 운영 문제 개선

광주시립미술관의 예산 문제를 살펴보자. 광주시립미술관의 연간 예산은 약 100억 원에 이르지만, 그 절반 이상은 중외공원 운영비로 소모되며, 실제 미술관에 투입되는 비용은 40억에서 5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비교할 때, 서울시립미술관의 연간 예산은 약 180억 원이며, 부산시립미술관 역시 120억 원을 확보하고 전시에 대해 20억 원 이상, 작품 구입 또한 10억에서 20억을 투입하고 있다. 가까운 전남도립미술관만 하더라도 전체 예산 70억 중에 전시에 20억, 작품 구입에 20억을 투입하는 것

과 대조된다. 이런 상황에 연간 관람객도 꼴찌 수준으로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문제의식이 없었던 이유는 역대 관장들이 재계약과 근무조건만 신경 쓰며,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복지부동 행정을 이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광주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 경험을 갖게 되어 예술 감상에서의 큰 격차를 발생시킨다. 안전한 예술 관람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의 문화 수준은 자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대안은 중외공원 운영팀을 분리하고 미술관 별도의 전문적 운영과 예산이 필요해 보인다.

비엔날레관의 확장성

비엔날레의 세계적인 위상 또한 원도심 활성화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니스 비엔날레나 카셀 도큐멘타는 원도심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문화적으로 큰 시너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관람객들이 단순히 전시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와 문화, 역사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광주는 중외공원 일대의 활동에 국한되고 있어 많은 외부 관람객들이 거주 관광을 하는 부산비엔날레로 향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 요소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이벤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현재 30년째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전체 예산을 해외 비엔날레(카셀도큐멘타, 베니스 비엔날레는 700~1000억, 광주 2026년 90억 이내)와 맞게 확대해야 한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아트플랫폼

아시아문화전당의 존재는 광주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주목적을 컨텐츠 창제작에 기반한다. 전당은 한국 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상하이 021 국제 아트페어 모습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마크 브레드포드' 전시 장면

높은 수준의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며, 지역 예술가 전시도 중요하지만 외부 관람객들에게 실망스럽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광주비엔날레와 아시아문화전당이 세계적인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모순이다. 뉴욕의 소호, 런던의 쇼디치, 베를린의 미테 거리, 베이징의 798 예술구 등 선진 도시들은 예술가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문화관광과 함께 서로의 창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다. 광주도 이러한 아트 플랫폼 구축을 위해 시유지나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 공간을 신속히 개발해야 한다. 그동안 전남일신 방직 터와 같은 적합한 공간이 논의되었었지만 무산되었고 새로운 적합지로 국군통합병원과 기무사 옛터 또는 북구에 집중된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는 가까운 담양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원도심에 동시대 미술 전시를 이끌만한 현대미술관을 포함한 아트플랫폼이 존재한다면 비엔날레와 아시아문화전당 관람자들이 연계되어 원도심 거주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역예술가들의 국내외 작가와의 교류로 인한 글로벌 진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광주가 문화 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도전은 현재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는 지역 사회와 정치권의 협업이 중요하다. 문화와 예술이 경제와 결합하여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는 길을 찾지 않으면, 광주는 예술적 잠재력만 가진 채 제 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현재의 문화예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외부 관광객이 광주를 목표로 삼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성공적으로 표출된다면, 곧 광주는 'K-Art'의 중심으로 드높은 위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이며, 광주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문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변화는 인내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미타 바즈〉

이와 같은 비전이 미래에 구현될 수 있도록, 시민과 정치행정의 결합된 노력이 필수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광주의 진정한 피어남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변화의 물결에 함께 올라서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가야 한다.

06

전남·광주의 문화 생태계 허브, 도서관

박주현_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예향의 새로운 지식문화 거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예로부터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예향(藝鄕)이자,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온 민주주의의 성지다. 이러한 풍부한 역사적·문화적 토양 위에서 최근 전남·광주 지역의 도서관들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의 도서관이 조용히 책을 읽고 시험을 준비하는 조용한 독서실 형태의 공간에 머물렀다면, 오늘날의 도서관은 지역민이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역동적인 '문화 생태계의 허브'로 진화했다. 또한, 도서관은 책이라는 매개체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시민의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고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며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시민의 삶을 연결하는 복합문화공간

전남과 광주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열린 마을 회관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눈부신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은 트렌디한 공간 혁신을 통해 북카페, 메이커스페이스, 미디어 창작실 등을 품으며 청년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인문학 강연, 작가와의 만남,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한 전시회 등이 연일 개최되며, 도서관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문화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 이야기꽃도서관은 0세부터 100세까지 그림책을 매개로,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은 다문화 프로그램을 매개로, 하남도서관은 AI 리터러시를 매개로 시민의 삶을 연결하고 있다.

전남 지역의 공공도서관 역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도서관은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최전선이다.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이중언어 도서 지원 및 문화 이해 프로그램 등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완도군은 창작과 카페가 있는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전남도립도서관과 해남도서관은 책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있다.

학교도서관, 미래 세대를 위한 글로컬 리터러시 센터

외국에서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심장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도서관은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리터러시와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심장부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전남·광주교육청은 학교공간혁신 사업

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딱딱한 열람실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유연한 리터러시 센터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AI 시대에도 독서인문교육은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AI와 독서인문 융합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다. 생성형 AI가 정보를 쏟아내는 시대일수록 역설적으로 인간 고유의 비판적 사고력과 윤리적 판단력은 필수적인 역량이다. 광주교육청은 '독서, 다 함께 학교' 정책을 통해 독서의 일상화와 교육과정의 연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 등을 포함한 전 교과 연계하여 독서하며, 사서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의 범람 속에서 학교도서관이 주도하는 '독서·인문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사서교사들은 단독이나 교과교사와 협력하여 주제 중심의 융합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은 책과 다양한 미디어 속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고 있다. 이처럼 전남·광주의 학교도서관은 독서라는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면서도, 에듀테크(EduTech)를 융합하여 미래 세대의 창의성을 꽃피우는 교육적 생태계의 중심 공간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오랫동안 광주·전남이 차별받아 온 결과가 학교도서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광주지역 내에서 일 년 동안 양성되는 사서교사는 5명밖에 되지 않는다. 교육대학원으로 양성되는 인원은 0명이다. 교육부가 허가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에 있는 어떤 대학교 한 곳의 교육대학원에서만 1년에 100명 정도가 양성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지역차별로 전남광주가 통합하면 전남광주의 사서교사 양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부재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전남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율 17%(10학교당 1.7명, 2024년 기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하위이다. 글로컬 리터러시와 독서인문 생활화를 위해서라도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율 향상이 필요해 보인다.

마을과 학교를 잇는 생태계 구축

전남대학교도서관은 '광주·전남이 읽고 톡 하다'라는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추진해 왔다. 전남대도서관은 매년 독서클럽을 모집하고 있으며, 전남광주의 한 책을 선정하였다. 2025년에는 김애란 작가의 장편소설 '이중 하나는 거짓말'이 선정되었으며, 작가가 직접 강연하기도 하였다.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전남대학교도서관의 한 도시 한 책 읽기 프로그램과 같이 전남과 광주,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도서관이라는 벽을 넘어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이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과 초중등학교의 연계를 통해 마을과 학교를 잇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 말
: 지역사회의 내일을 밝히는 지식문화의 심장

전남·광주의 도서관은 더 이상 서가에 꽂힌 먼지 쌓인 책들의 창고가 아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일상에 스며들어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위안을 얻는 안식처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은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리터러시 생태계의 중추가 되었다. 예술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남·광주 지역민의 DNA는 이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새롭게 발현되고 있다. 지식과 문화가 흐르는 이 거대한 생태계 속에서, 도서관은 세대와 계층을 연결하고 지역의 내일을 밝히는 환한 등대와 같다.

전남과 광주가 두 달 안에 통합된다. 통합특별시에서도 도서관이 시민의 리터러시 향상에 도움을 주고, 삶의 치유를 지원하며, 복합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K-라이브러리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기억을 설계하고, 시간을 복원하다.

–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참여를 회상하며 –

신웅주_조선대학교 교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

옛 전남도청 복원 계획을 설명하는 신웅주교수, 2018년

2018년, 나는 건축역사학자의 자격으로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이 과업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라는 틀로는 온전히 설명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건축물을 복원하는 일을 넘어, 한국 현대사의 가장 치열한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현재에 되살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에 참여했던 경험은 지금까지도 연구자로서 큰 자부심으로 간직하고 있고, 그 과정과 결실은 오래도록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에 당시 6개월간의 시간을 되짚으며 회상해 보고자 한다.

옛 전남도청 일원은 5·18민주화운동의 중심지이자 최후 항쟁지로서, 단순한 행정시설의 범주를 넘어선 역사적 장소이다. 이곳은 국가 폭력에 맞선 시민들의 집단적 의지와 연대, 그리고 공동체적 실천이 응축된 공간이며,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끌어낸 상징적 장소로 자리해왔다. 따라서 옛 전남도청 복원이라는 행위는 물리적 형태를 되돌리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기억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확장될 수밖에 없었다.

연구는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원형'이라는 개념 자체의 불확실성이었다. 일반적인 건축 복원과 달리, 이 프로젝트에서의 원형은 단순한 건립 당시의 상태가 아니라 '1980년 5월'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순간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즉, 건축물의 형태뿐만 아니라 당시의 기능과 사용 방식, 그리고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행위까지 포괄하는 복원이 요구되었다. 실제로 기본계획에서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도면은 일부만 남아 있었고, 내부 공간을 보여주는 사진은 거의 확보되지 않았다. 특히 리모델링 과정에서 공간의 변형과 훼손이 심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만으로는 과거의 공간을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우리 연구팀은 남아 있는 도면, 문헌자료,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공간을 재구성해야 했다. 건축적 분석과 인문학적 해석이 동시에 요구되는, 말 그대로 '추정에 기반한 복원'의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팀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완전한 의미의 원형 복원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단순히 자료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축적된 물리적 변화와 현대의 법적·기술적 조건이 과거의 상태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피난 규정, 장애인 편의시설, 구조 안전 기준 등은 현대건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며, 이는 1980년 당시의 공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조건을 필요로 했다. 특히 철거와 증개축 과정에서 구조적 연속성이 상실되고 원형이 크게 훼손된 도청 별관의 복원은, 단순한 형태 재현을 넘어 구조적 안정성과 역사적 진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점에서 과업 전반의 핵심적인 난제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한 복원'이 아닌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원형 재현'이라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이는 건축적 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핵심 공간—예컨대 시민군 상황실, 방송실과 같은 장소—은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그 외의 공간은 현재의 활용과 안전 기준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접근은 복원을 '과거의 재현'이 아닌 '현재와 과거의 대화'로 이해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은 복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였다. 논의 과정에서 연구팀은 도청 본관과 개별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원이 아니라, 이들 건축물과 연결된 마당, 통로, 광장까지 포함하는 '면(面)적 복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실제로 보고서에서도 옛 전남도청 일원은 개별 건축물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전개된 공간 전체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공간을 단순한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사건과 기억이 축적된 장소로 바라보는 역사적 관점이 건축에 반영된 결과였다.

당시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이 공간

옛 전남도청 복원 마스터플랜

이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역사라는 사실이었다. 복원 방식과 범위를 둘러싸고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갈등이 존재했으며, 이는 이 장소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살아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건축분야의 연구책임자와 참여 연구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면서, 학술적 근거와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려 노력했다.

옛 전남도청은 우리가 수립했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건축물의 보수·복원이 이루어졌다. 기본계획 수립 후 7년 만인 2026년 5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임시 개관한 옛 전남도청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감정은 단순한 성취감과는 다른 것이었다. 오히려 시간의 층위가 한꺼번에 겹쳐지는 듯한, 묘한 감각에 가까웠다. 과거의 흔적을 복원한 공간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 현재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고, 동시에 미래를 향한 가능성도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공간에서 감지되는 '낯섦'은 결코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원이 지닌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였다. 그것은 과거로의 완전한 회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수행한 복원이 결국 현재의 시선에 의해 구성된 하나의 해석임을 환기시킨다. 이처럼 건축적 복원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 기억을 구성하는 행위이며, 과거

옛 전남도청 복원 구상 (좌부터 회의실, 본관, 별관)

의 의미를 현재 속에서 다시 읽고 재맥락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복원된 옛 전남도청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무는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추모의 장소이자 교육의 장이며, 동시에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현재의 언어로 전달하는 공공 공간이다. 2019년 2월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이제 이 공간은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실제로 복원 이후 이곳은 단순한 기념시설을 넘어, 다양한 시민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열린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은, 건축이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사회적 기억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특히 건축역사학자로서 과거를 해석하고 재현하는 작업이 현재 사회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건축물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매개하는 공간'을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른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공간 속에서 다시 경험되고, 그 경험이 미래의 기억으로 이어지는 과정, 옛 전남도청 복원은 바로 그러한 시간의 연속성을 구현하려는 시도였다.

이제 그 공간은 우리 손을 떠나 시민들의 몫이 되었다. 앞으로 이곳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기억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공간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복원된 옛 전남도청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기억을 환기하며, 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끊임없이 되묻는 장소로 남게 될 것이다.

출처 :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 등) 복원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2019년

봄날의 월봉서원에서 '너'와 '나'를 묻다

이현식_이현식멘토스쿨 원장

1. 숲길 끝에서 만난 철학의 봄

광주 광산구 너머, 고즈넉한 황룡강 물줄기를 따라 걷다 보면 비밀스러운 정원처럼 내려앉은 월봉서원(月峰書院)을 마주하게 된다.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운 곳이지만, 유독 봄의 월봉은 남다르다. 서원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귀를 간지럽히는 맑은 물소리다. 서원 앞을 흐르는 시냇물은 겨우내 묵직했던 얼음을 깨고 나와, 봄날의 생명력을 실어 나른다. 그 물소리에 발맞추어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 복잡한 소음들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평온함이 느껴진다.

빙월당(氷月당) 앞마당에 서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기와와 마루를 포근하게 감싼다. '얼음처럼 맑은 마음과 달처럼 깨끗한 정신'을 뜻하는 빙월당의 이름처럼, 투명한 햇살 아래 빛나는 서원의 풍경은 보는 이의 흐릿한 정신을 맑게 씻어내 준다. 차가운 겨울을 견뎌낸 매화 향기가 이 따스한 볕을 타고 코끝을 스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이곳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닌, 거대한 '사유의 정원'임을 말이다.

2. 고봉과 퇴계: 세대를 초월한 위대한 우정

월봉서원의 주인인 고봉(高峰) 기대승은 조선 유학의 한 획을 그은 천재 학자였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방식은 조금 독특하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퇴계(退溪) 이황과 무려 13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철학적 논쟁을 벌였다. 당시 고봉은 32세의 혈기 왕성한 신진 학자였고, 퇴계는 58세의 존경받는 대학자였다. 무려 26년이라는 세대의 벽과 까마득한 학문적 위계를 넘어선 이들의 대화는, 서원 앞 시냇물이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고 흐르듯 면면히 이어졌다.

퇴계는 새파랗게 젊은 후배의 날카로운 비판에 권위로 맞서지 않았다. 오히려 고봉의 논리가 타당하면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보완했다. 고봉 또한 스승과 다름없는 선배 학자에게 예(禮)를 다하면서도, 학문적 진실 앞에서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자신의 논리를 펼쳤다. 봄볕이 만물을 고르게 비추듯, 상대의 의견을 편견 없이 받아들였던 두 거인의 '존중의 미학'은 갈등과 대립이 일상이 된 현대 사회에 묵직한 울림을 준다.

3. 사단칠정(四端七情), 마음의 길을 찾다

이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매달렸던 주제는 바로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이었다. 언뜻 들으면 딱딱한 성리학 이론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다. 인간의 순수한 도덕적 본성(사단)과 희로애락의 감정(칠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담론이다.

고봉은 인간의 모든 감정 안에 도덕적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역설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다스리고 긍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과 맞닿아 있다. 분노와 슬픔조차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면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고봉의 통찰은, 감정의 과잉과 결핍 사이에서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따스한 위로를 건넨다. 서원 앞 시냇물이 때로는 거세게 소용돌이치다가도 결국 넓은 강으로 흘러가듯, 우리 마음의 감정도 올바른 길을 찾는다면 평온한 바다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4. 살아있는 서원: 과거의 유산에서 미래의 학교로

오랫동안 서원은 죽은 이들을 기리는 박제된 공간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월봉서원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놀랍다. '살롱 드 월봉'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인문 토크 콘서트, 아이들이 선비 옷을 입고 예절을 배우는 '꼬마 선비' 프로그램 등은 월봉서원을 호남 문화의 살아있는 심장으로 만들고 있다.

서원 앞 뜰에서 따스한 봄볕을 쬐며 차 한 잔을 나누고, 시냇물 소리를 배경 삼아 철학을 논하는 시민들

의 모습은 500년 전 고봉과 퇴계가 나누었던 교감의 현대적 변용이다. 이곳은 이제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모여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미래의 학교'이자 '문화적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

5. 결론: 호남 정신의 정수, 월봉에서 길을 묻다

호남의 정신문화를 흔히 '의(義)의 정신'이라 부른다. 불의에 항거하고 대의를 위해 자신을 던졌던 그 뜨거운 에너지는, 사실 고봉 기대승으로부터 시작된 치열한 학문적 탐구와 자기 성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숙한 시민의식의 원형을 이곳에서 발견한다. 고봉과 퇴계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지식을 뽐내는 논쟁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며 더 나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민주적 대화'의 정점이었다. 서로의 다름을 칼날처럼 휘두르는 대신, 따스한 봄볕처럼 서로를 비추며 공존의 길을 모색했던 그들의 태도는 현대 시민사회에 절실한 덕목이다. 나 자신의 목소리만큼 타인의 목소리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비판 속에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 품격이야말로 월봉서원이 우리 시대 시민들에게 건네는 가장 값진 유산일 것이다.

서원을 나서는 길, 발길 아래 흩날리는 벚꽃 잎과 유유히 흐르는 시냇물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이를 퇴계처럼 온화하게 품어 안을 수 있는가?"

봄은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계절이다. 월봉서원의 따스한 햇살과 맑은 시냇물 소리는 우리 마음속에도 새로운 사유의 싹을 틔워준다. 고봉과 퇴계가 나누었던 13년의 우정처럼, 우리 또한 이 봄날 타인과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 광주의 봄은 월봉서원의 담장 너머, 흐르는 물결 위에서 이미 깊어가고 있다.

광주 중앙초등학교로의 시간여행

임선화 |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한때 재학생 수 6천 명이 넘었는데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된 광주중앙초등학교. 광주의 중심인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이자 옛 광주 읍성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광주중앙초등학교의 역사는 백 년을 넘었다. 백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학교가 이제는 입학생 수 한 명 없는 학교가 되어 그 명맥이 유지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학교가 되었다. 백 년이 넘는 중앙초등학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근현대사가 숨 쉬고 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옛 전라남도청 자리에 위치해 있다. 근대 광주는 1896년 전남관찰부가 광주로 오면서 시작되었다. 관찰부는 금남로2가와 대의동 일대에 있었던 광주 관아 건물을 사용하였고, 1910년 도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광산동으로 이전하였다. 그곳이 지금의 아시아문화전당이다. 근대 광주의 역사에서 도청과 그 주변은 중요한 공간이 되었고, 그 주위에 광주중앙초등학교가 있었기에 중앙초는 광주의 근현대사와 함께했던 공간이 되었다. 지금부터 광주중앙초등학교(이하 '중앙초'로 생략)로의 시간여행을 떠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광주를 엿보도록 하자.

중앙초는 1907년 일본인회가 설립한 학교였다. 1897년 목포가 개항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전남지방에도 들어왔다.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목포에 정착했지만, 일부는 광주에 들어왔다. 일본인들이 광주에 들어온 시작점에는 오쿠무라(奧村) 남매가 있었다. 오쿠무라 엔싱(奧村圓心)은 교토 본원사(本願寺)의 승려였는데, 부산에 본원사 분원을 세워 개화파 인사들과 교류하였다. 1897년 목포가 개항하면서 엔싱은 본원사 분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목포에 왔다. 그러다 엔싱은 광주까지 와서 본원사 분원을 세우고자 하였다.

엔싱은 서문 밖 보작촌(지금의 불로동 1번지)에 본원사 분원을 짓기 위한 터를 잡았다. 그 소식을 들은 동생 오쿠무라 이오코(奧村五百子)가 목포를 거쳐 광주에 들어와 오빠와 합류했다. 이오코는 둘째 딸 미츠코와 사위 세쓰타로를 광주로 불러들이고 실업학교 설립에 착수했다. 학교터는 엔싱이 마련한 보작촌에 있었다. 이들은 쓰시마에서 목재를 들여오고 인부들은 일본과 동래에서 불러 학교 건물을 지었다. 이 학교 건물을 짓는 것을 계기로 일본인들이 광주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실업학교는 1898년 11월 '홍간지 오쿠무라 실업학교(本願寺 奧村實業學校)'라는 간판을 걸고 문을 열었다. 교장은 오쿠무라 이오코였다. 이 실업학교는 일본인뿐 아니라 한국인 학생들도 가르쳤다고 하는데, 실제로 당시 일본인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기에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

인 학생들을 받아들인 이유는 일본에 호감을 갖는 청년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고, 이 학교는 얼마 가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다.

학교 건물은 광주를 드나드는 일본인들의 숙소로도 사용되다가, 목포이사청(영사관) 광주지청 등으로 활용되면서 광주 지역에 일본인들을 정착시키는 주요 거점이 되었다. 일본인들이 광주에 본격적으로 이주한 것은 러일전쟁 이후였다. 1904년 9월부터 목포에서 영산포를 소형 발동선이 매일 운항하였는데 일본인들은 이 선편으로 영산포에 들어왔다. 영산포에서 하루를 묵은 일본인들은 나귀를 타거나 걸어서 남평에 들렀고, 오후쯤 광주 백운동의 진다리와 광주천을 건너 서문을 통해 보작촌에 도착했다.

이렇게 광주에 도착한 일본인들은 정착을 하였다. 이주한 일본인들이 숫자가 많아지자 1907년 3월 일본인회를 조직하였다. 당시 일본인 수는 68명이었으나 일본인들은 일본인 아동의 교육을 위해 1907년 4월 일본인회 소학교 설립을 인가받았다. 그리고 6월 일본인회립 심상고등소학교를 개교하였는데, 학교는 이사청에 자리했다. 즉 오쿠무라 이오코가 설립하였던 실업학교 자리에 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1910년 총독부가 학교조합령을 발표하자, 1911년 일본인회는 학교조합으로 개칭하였고, 학교는 학교조합립이 되었다. 학교 이름은 학교조합립 광주공립심상고등소학교가 되었다.

(사진 : 1900년 광주읍성 도면, 출처 : 박선홍, 『광주』1, 광주문화재단, 2012.)

일본인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취학 아동들의 수도 늘어났고, 일본인들은 새롭게 학교 부지를 마련하여 1913년 이사하였다. 지금의 중앙초가 자리한 곳이었다.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광주공립심상고등소학교는 일본인 아이들을 위한 학교였다.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은 이 학교를 '광주일본인소학교'라 불렀다. 그럼 이 학교가 일본인들만 다녔을까?

필자는 중앙초등학교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찾았다. 1957년 8월 31일 『동아일보』의 기사에 간첩 사건이 발표되었는데, 이 중 한 명인 김정제가 일제강점기 광주소학교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이 있었다. 광주중학교처럼 학생들 대부분은 일본인이었지만 한국인 재학생도 있었던 것이다. 일본인 학교에 재학하였던 한국인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가끔 한두 명씩 일본인 학교를 다닌 한국인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광주공립심상고등소학교는 일본인들의 것이었다.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광주공립중앙초등학교 엽서
(출처 : e-뮤지움(광주시립민속박물관소장)

1941년 광주공립심상고등소학교는 광주중앙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개정 교육령에 의해 한국인들을 위한 보통학교나 일본인들을 위한 소학교가 모두 '국민학교'로 통일되었던 것이다. 이는 내선일체를 강화하여 한국인을 전쟁터에 끌어들이기 위한 일제의 기만

책이었다.

해방 이후 1945년 10월 일본인 학교를 접수하여 '광주중앙공립국민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1947년 4월 30일 광주중앙국민학교로 교명을 바꾸었고, 1996년 3월 1일 광주중앙초등학교가 되었다.

지금은 학교 운동장 규모가 작기도 하고, 넓은 광장이나 체육관 등이 시내 곳곳에 있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에서 일반시민들의 큰 행사가 열리는 경우는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학교 운동장은 시민들의 행사나 학생이나 시민을 동원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부터 억압체제에서 이러한 일들은 빈번히 행해졌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만의 학교이고 시설이었기에 일본인들을 위한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 한국인들도 가끔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광주일본인소학교에서 행해진 행사는 그들만을 위한 것인 경우가 허다했다. '철도 개통 축하', '전남산림회발회식' 등 여러 행사에서 중앙초의 운동장이 이용되었다. 주로 일제의 치적이나 발전상과 관련된 행사가 많았다.

해방 이후 억압체제가 수립되면서 학생이나 시민들이 동원된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앙초의 운동장이 많이 이용되었다. 정부 주도의 행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행사에서도 중앙초의 운동장은 그 쓰임새를 하였다. 백범 김구 선생의 애도식이 거행되기도 하였다. 그 외 전남도청이 시민들을 동원한 행사를 중앙초 운동장에서 연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행사는 197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는 대단히 가난하였지만,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대단하였다. 전후 베이비붐으로 취학아동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수용할 학교는 많지 않았다. 교육재정도 빈약한 상태라 학교를 짓는 속도는 늘어나는 학생수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 상황에서 중앙초의 교사(校舍)는 오래되어 불량시설이 되었다. 1959년 8월 15일 『조선일보』에는 당시 학생들이 겪었을 애달픈 일이 보도되었다. 중앙초의 건물은 목재였는데 지어진 지 50년 가까이 되다 보니 교사가 낡아 비가 새고 심지어 건물이 기울어져 간다고 하였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개축을 못한다는 것이다. 학교 건물이 기울어져 가는데, 그곳에서 수업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학생 수는 많아 공간은 부족하니 당시 학생들의 곤란함이 느껴진다. 우리 앞선 세대들은 이런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경제개발에 매진했을 것이다.

해방 이후 1946년 중앙초의 학생 수를 보면 1,500여 명이었다. 이후 학생 수는 점점 많아졌고, 1966년 6,000여 명으로 수적인 면에서 정점을 찍었다. 1970년대는 4천 명대를 유지하였고, 1980년대는 3천 명대였다. 택지지구가 조성되기 시작한 1990년대가 되면 숫자가 급격히 적어진다. 광주 시내 택지지구가 조성되고 도심공동화가 되면서 도심 한복판의 중앙초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앙초의 역사성 때문에 학교 건물을 존속시키면서 공간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아직 재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섣부른 논의를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광주 시민들이 현명한 방법 모색을 하며 준비하는 것이 미래의 광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중앙초등학교전경(출처 : 국가유산청)

지역의 얼굴, '빵'이 되다

편집부

광주의 충장로를 거닐다 보면, 바삭한 빵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는 곳이 있다. 1973년 문을 연 궁전제과다. 이곳은 단순한 빵집을 넘어, 세대를 잇는 추억의 공간이자, 광주 사람들의 삶과 시간이 켜켜이 쌓인 장소다.

한국에서 빵이 본격적으로 식탁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반이다. 외래 음식으로 시작했지만, 곧 아이들의 간식이자 가족의 특별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1960~70년대, 프랜차이즈 이전의 '동네 빵집'들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사람이 모이고 이야기가 쌓이는 장소였다.

광주 역시 그 흐름 속에 있었다. 충장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제과점들은 도시의 성장과 함께 사람들의 일상을 채워갔고, 그 기억은 세대를 넘어 이어졌다.

궁전제과, 한 집안의 역사이자 도시의 시간

궁전제과는 1973년 4월, 장려자 여사가 충장로1가에 '궁전과자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며 시작됐다. 상호는 당시 인기가 많았던 '궁전다방'에서 따왔다고 전해진다.

이 작은 가게는 곧 광주의 대표 제과점으로 성장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1984년 12월,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점포 12개가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경영을 맡고 있던 윤재선 대표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상인들에게 보상을 진행하며 신뢰를 잃지 않으려 했다. 보험금과 개인 자금을 더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보전했고, 상인들과의 관계를 지켜냈다.

이후 대출을 받아 가게를 다시 정비하고 문을 열었을 때, 시민들은 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섰다. 그 장면은 단순한 재기의 순간이 아니라, 궁전제과와 광주시민이 서로를 지탱해 온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빵 하나에 담긴 이야기

직접 빵을 사러 온 일화, "맛있는 빵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어린 손님의 손편지처럼, 이곳의 빵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기억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된다.

1984년 LA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서향순이 광주에 가면 가장 먹고 싶은 음식으로 궁전제과의 팥빙수를 꼽으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한 가게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지역의 이미지를 함께 확장시키는 계기가 된 셈이다.

손맛과 철학, 그리고 고집

궁전제과가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다.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만든 제품과, 변함없는 서비스에 대한 태도다. 화려함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빵, 그리고 변하지 않는 손맛이 이곳의 중심을 지탱해 왔다.

매일 새벽부터 이어지는 제과 작업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생활의 방식이자 철학이다. 따뜻한 공룡알빵 한 입과 바삭한 나비파이의 식감은, 오래된 가게만이 줄 수 있는 소박하지만 깊은 만족을 전한다.

궁전제과는 현재 충장점을 비롯해 여러 지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광주'라는 이름을 지키고 있다. 외부로의 확장보다 지역에 뿌리내린 기업으로 남는 선택을 해왔다.

현재는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제과기술학원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단순한 사업체를 넘어, 지역과 호흡하는 향토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맛, 그리고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어느덧 빵집은 단순한 동네 맛집의 의미를 넘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었다. 주말이면 '빵지순례'를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가게 앞에서는 인증사진을 찍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다. 최근 광주에서는 창억떡집 앞에 때아닌 줄서기 풍경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 아침, 문을 열기도 전부터 손에 번호표를 쥔 채 차례를 기다리는 줄은 어느새 골목을 따라 길게 늘어서고, 막 나온 떡을 받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하다.

타지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주의 풍경을 바라보며 뿌듯함과 함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든다.

자극적이고 단순한 입맛의 유혹에 사람들이 몰리는 사이, 지역이 지닌 다양한 문화적 자원은 얼마나 충분히 주목받고 있을까.

맛은 분명 가장 빠르고 직관적인 경험이다. 한 입의 만족은 설명보다 쉽고, 기억보다 선명하게 사람을 움직인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점점 더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따라 도시를 이동하고, 그 경험을 소비하며 기록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질문이 남는다. 한 도시를 기억하는 방식이 특정한 음식이나 몇몇 장소로 수렴될 때, 그 지역이 쌓아온 더 많은 이야기들은 어디에 머무르게 되는가.

한 도시를 이해하는 방식이 '맛'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빵 한 조각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너머의 이야기를 바라볼 여유도 함께 남아 있기를 기대하게 된다.

‘보들탑’ 여정을 마치고

천득염_전남대 명예교수

보들탑’이 무얼까? ‘보여주고 들려주는 불탑이야기’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의 실무자가 널리 알리고자 만든 재미있는 작명이다.

재단에서 그간 몇몇 분이 지적 나눔을 위해 다양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로서는 오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불교건축과 건축 문화재를 주된 전공으로 하였는데, 이번의 경우처럼 불탑에 대하여 7회 강의와 현장 답사 1회까지 한 경우는 전혀 처음이다. 관심도 없을 것이고 들어 줄 사람들도 없을 것으로 짐작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별로 재미없을 강좌인데 첫 강의를 접하고 너무 놀랐다. 우선 참여자 수가 90명에 이르고 열의가 대단하였기 때문이다. 1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7강을 하고 나서 3월 10일 현장 답사를 다녀왔으니 무려 3개월간 탑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광주에서도 긴 시

간 어려운 주제로 강좌개설을 하여도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오래전 영남대학교 박물관의 전통문화 관련 강좌에서 발군의 해설가로서 또 저술가로서 스타가 된 유홍준 교수(현 국립중앙박물관장)를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좀 어렵고 세분화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도 해도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물론 그간 광주에서 전남대 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의 시민강좌도 이에 부족함이 없으나 하나의 주제로 오래 진행한 예는 찾기 힘들다. 다들 큰 주제로 전국적으로 명망이 있는 여러분의 강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보들탑' 강좌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첫 주에는 불탑(Stupa)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였다. 왜 우리가 불탑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불탑은 어떤 의미와 기능을 하는가이다. 불탑은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물리적 시설이기에 그의 묘이지만, 부처 그 자체이고 그를 모시는 공간임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첫날에는 강의자가 그의 저술인 인도 불교문화와 불탑 관련 책을 전체 참여자들에게 증정하였고 매주 약 80매 정도의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보여주었다. 이들 내용을 자유롭게 공유하니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더욱 좋았다. 아울러 유튜브로 제작되어 널리 시민들에게 쉽게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병섭 감독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두 번째 강의는 붓다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다. 부처는 불교라는 종교를 개창한 인류 문명사에서 큰 성인으로 인간에게 준 가르침을 알게 하였다. 그의 탄생과 출가, 깨달음, 가르침, 열반, 다비(화장), 진신사리의 수습과 8기의 시원 불탑 건립에 대한 내용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인도의 북부 갠지스강 주변 마가다국에서 생성된 불교라는 믿음 공동체는 어떻게 넓게 인도 전체 혹은 다른 나라들로 전래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인도 서북지방 간다라와 남동지방 안드라로 확산된 신흥종교인 불교는 브라만교라는 기존의 종교가 지니는 4계급과 제사 의례 중심의 교리를 벗어나 자유롭고 평등, 깨달음을 기본으로 한 종교로 확산된 것임을 밝혀주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주를 강의하다 보니 강의실이 좁고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더 넓은 공간으로 옮겼다. 9층의 대강의실이 마침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더 좋은 공간에서 여유롭게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두 번째 강의에서도 참석자는 오히려 늘었다. 강의가 유익하다는 입소문 때문이리라...

세 번째 강의와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강의는 초기 시원불탑이 다른 불교국가로 전래되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였는가를 설명하였다. 간다라와 안드라 지역, 그리고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의 근본불교라고 칭하는 소승불교 국가에서 나타나는 불탑의 모습을 주로 강의하였다. 이어서 과거 서역 지방인 신장위구르지역과 중국 중원지역으로 불교가 전래되고 불교문화를 꽃피워 불교사원과 불탑이 수없이 많이 건립되었음을 밝히는 내용으로 전개하였다. 여러 불교국가 불탑의 유별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강의자가 수십 년간 촬영한 사진을 매주 80여 컷을 보여주고 설명하니 이해도가 높아지고 또 이국적인 불교국가의 풍경과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강의는 한국불탑에 대한 강의로 이어졌다.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에 불교가 전래되고 아울러 불교 건축 특히 불탑이 새로이 건립되었음을 알게 하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목조불탑이 석탑과 모전 석탑으로 번안되어 한반도에 삼국이 각기 고유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이해하게 되었고 한반도의 삼국의 불탑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생각된다. 아울러 한·중·일 삼국의 불탑형식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탑의 세부 명칭이 어렵고 시대별, 지역별로 구분이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설명하는 강의가 더욱 의미가 있고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되어 마지막 단계에서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다. 부여에서 사비 백제의 중심 사찰인 정림사지와 석탑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익산으로 이동하여 백제 무왕이 백제 부흥을 도모한 사찰인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으로 답사가 이어졌다.

이번 강의를 진행한 자의 입장에서 지난 8주 동안 참 행복했다. 무엇보다도 퇴직자나 문화애호가,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들의 열의에 찬 모습을 보고 더욱 힘이 나고 강의 준비를 더 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강좌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그때에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소위 문화중심도시라는 광주에서 격조있고 품격있는 조그만 문화운동으로 전개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나는 계속 광주

양인자 – 동화작가

1. 1980년 나는, 중학교 2학년이었다.

우리 집 옥상에서 MBC 방송국이 불타는 것을 봤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틈에도 "계엄 해제 · 전두환은 물러나라"는 시위대의 구호가 골목을 울렸다. 시위대가 발맞춰 뛰는 소리는 마치 북을 울리는 것처럼 둥둥거렸다. 내 가슴도 쿵쾅거렸다.

바로 며칠 전 학교는 휴업을 했다. 느닷없이 교실로 들어온 담임 선생님은 우리를 교문이 아닌 '개구멍' 같은 곳으로 데리고 갔다. 눈동자만 빠르게 움직이던 담임의 굳은 표정과 함께 개구멍을 통한 하교.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다. 나는 골목을 돌고 돌아 어찌어찌 집을 찾아왔다, 계속 재채기를 하고 콧물을 흘리면서. 최루탄 때문에 도시 전체가 고춧가루를 뿌려 놓은 것처럼 매웠다. 숨쉬기가 불편한 것보다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더 불안했다. 음습하다와 음산하다는 낱말을 들었을 때 그날 우리 동네의 풍경이 떠올랐다.

학교에 가지 않는 대신 나는 언니를 따라 시내를 나갔다. 산수오거리를 지나 조선대로 가는 8차선 도로에 버스와 트럭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달리고 있었다. 버스와 트럭에 탄 사람들이 애국가를 불렀다. 울컥했다. 데모를 하는 사람이 애국가를 부르다니. 나쁜 사람이라면 절대 애국가를 부를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동호'도 똑같은 질문을 한다.

나는 트럭들을 따라 도청 앞 분수대 쪽으로 갔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총소리가 났고 사람들은 흩어졌다. 나 역시 언니 손을 잡고 산수동사무소가 있는 골목까지 뛰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동사무소 앞에 있는 펌프 물을 틀어 피 묻은 청바지를 닦고 있었다. 적십자 병원에 환자를 업어다 주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병원은 발 디딜 틈이 없다며 전두환 욕을 했다. 총소리와 구호와 욕설과 환호가 뒤엉킨 이상한 광경이었다.

또 하루는 학생 대열에 있다가 하필 코피를 쏟았다. 나는 코를 막고 대열을 벗어났다. 어떤 아주머니가 대문을 열어주며 수도를 가리켰다. 나는 모르는 사람 집에서 세수를 하고 코피를 닦았다. 대열에 끝까지 있었다면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두고두고 의문이었다.

광주는 5월 27일 새벽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잊지 마세요." 그 처절한 방송과 콩 볶는 듯 울려대는 총소리와 함께 침묵으로 빠져든다.

어른들의 멍한 눈동자를 보면서 '국가는 왜?'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이 왜?'라는 의문과 분노로 학창 시절을 보냈다. 세상이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감과 어떻게 살까 하는 두려움이 내 뇌리를 지배했다. 광주는 고립된, 상처투성이 도시였다. 나는 그런 광주가 가여웠다.

2. 그리하여 나는, 썼다.

동화를 쓰기 시작했지만 광주의, 5월을, 다루어 보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나는 감히, 말할 수 없는 문제였다.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여겼다. 또한 나 자신에게 광주는 객관화가 되지 않았다. 광주는 개별로 존재하지 않았다. 아픔과 분노의 감정이 교차할 뿐이었다. 망월동은 슬펐고 금남로는 늘 처연했다. 그런데 도서관 강연 등에서 만난 어른들은 너무 잘 쓰려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와야 함을 강조하셨다. 1980년 5월 광주를 대부분 잘 아는 것 같지만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고. 당시 광주에서 살았던 100만 명의 시민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음을 나는 깨달았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대낮에 죄 없는 시민들을 때려죽이고 총까지 쏘았다. 시민들은 총부리 앞에서 부상자를 외면하지 않았고 처참한 시신들을 길거리에 버려두지 않았다.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건강한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나는 바로 그날 이야기부터 시작하자고 마음먹고 시민들이 쓰러지는 처절한 모습과 함께 '광주정신'이 실현되는 순간을 「그날, 우리는」[1]에 담았다.

그 다음은 광주를 더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5 · 18 당시 시민군이었던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이해하는 아이를 「망월동 삼거리」[2]에 풀어냈다. 망월동은 시청 청소차에 실려 간 주검이 부려진 곳. 사건의 진상 규명은커녕 마음대로 추모하지 못하고 통곡조차 금지된 땅이었다. 금단의 구역을 목숨 걸고 지켜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다고 생각해 5월만 되면 더 말수가 없어진 인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금남로에 섰다. 전남 도청은 5월 항쟁의 최고 격전장이며 동시에 최후의 항전지였다. 이후 도청 앞 분수대 광장과 금남로는 집회와 시위의 상징이 되었다. 군부독재 시절 금남로에 진출하기 위해 인근 골목에서 게릴라전을 펼친 일들을 떠올리면 분노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 같다. 그런데 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서며 도청은 헐리게 되었다. 나는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상기하고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커피도 같이 마셨어?」[3]를 썼다. 주인공은 학교 계기 수업을 통해 5 · 18을 배웠지만 금남로에서 당시의 상황이 담긴 비디오를 보면서 충격을 받는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보고도 동생은 엉뚱하고 쓸데없는 질문만 한다. 동생도 언니 같은 감수성을 지녔으면 하는 나의 바람을 담았다.

3. 나는 계속 쓸 것이다.

이야기는 수없이 변주된다. 당시의 아이들이 겪었을 공포감, 또 희생자 가족의 고통과 아픔, 일상이 파괴된 사람들의 지난한 삶. 그건 광주라는 공간에 제한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더욱 핍진하게 광주를 그리고 싶었고 단편들에서 다 말하지 못한 5월 27일 새벽을 다른 모습으로 그려내고 싶었다. 사실의 복원이 아닌 나의 염원을 담아내도 괜찮겠다고 결론 내리고 마지막일 줄 뻔히 알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하는 장면을 만들고 『오월의 어린 시민군』(위즈덤하우스, 2021)을 썼다. 신문 배달을 하는 찬호와 그의 친구 현조를 통해 광주의 아이들은 나름의 방식대로 항쟁에 참여했음을 말했다. 그 시각 그 장소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의미가 될 수 있음을 짚은 거다.

광주는 진실은 철저히 은폐된 채 오랫동안 고립되고 폭력의 도시라는 누명을 썼다. 침묵을 강요당했고 갈라치기를 통한 지역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규명된 사실조차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광주는 무기력하지 않았다.

나는 글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고 말해왔고, 공간의 의미를 공유하고 싶은 욕심에 되도록 옛 전남 도청 분수대가 내려다보이는 전일빌딩이나 5 · 18의 시발점인 전남대학교에서 사람을 만난다. 역사는 미래를 위한 나침반임을 강조한다.

5월 광주는 나의 정체성이다. 나는 꾸준히 작품으로 말할 것이다.

1) 『가출 같은 외출』(푸른책들.2018) 단편동화집에 실림.
정우 누나를 주인공으로 한 「꽃잎이 된 교복」 은
청소년소설집 『우리들의 DNA』(바람의 아이들, 2019)에 실림
2) 『가출 같은 외출』(푸른책들.2018) 단편동화집에 실림
3) 『사람을 찾습니다』(리틀씨앤톡,2021) 단편동화집에 실림

재단소식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 MOU 체결

2025년 12월 29일(월) 재단과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가 지역 시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와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시민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대학 정규 및 비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형 수업 개발 ▲지역 문화자원 분류 및 메타데이터 고도화 ▲아카이브 기반 문화콘텐츠 제작 및 오픈 캠퍼스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RISE 사업 기반 지역 협력 모델로서, 대학의 전문성과 시민사회 단체의 현장 경험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교육-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민도슨트 양성과정 (26.01.20~26.01.30)

1월 20일(화)부터 1월 30일(금)까지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시민 도슨트 양성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번 양성과정은 전시장 안에 머무는 해설가 양성을 넘어, 미술과 전시, 도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광주의 역사와 공간, 문화적 맥락을 시민 스스로 해석하고 일상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기획된 시민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40명의 시민과 함께한 시민 도슨트 양성과정은 미술사 기초와 전시 이해, 도시 문화 속 예술의 역할을 살펴보는 강좌로 시작했다. 더불어 광주 미술사와 제16회 광주비엔날레까지 살펴보고, 도슨트 실습을 통해 광주와 전시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고 전달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재)광주비엔날레와 MOU 체결

2월 3일(화) 재단은 (재)광주비엔날레와 광주 지역문화의 확산과 시민 참여형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시민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의 연계 및 협력 ▲지역 문화예술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및 정보 공유 ▲'문화도시 광주' 가치 확산을 위한 각종 시민문화사업의 상호 지원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 협력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의 시민 기반 문화 활동과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결합된 사례로, 지역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확장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기대를 모았다.

호남 예술인 아카이브

2월 9일(월)부터 재단 공식 채널을 통해 「호남 예술인 아카이브」를 공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재단 20주년 기념영상 제작 예산으로 추진되었으며, 재단은 일회성 홍보를 넘어 지역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공공의 자산으로 기록하고자 기획했다. 서로를 살리는 선택이 지역 문화의 선순환을 만든다는 믿음 아래, 지역에서 묵묵히 창작 활동을 이어온 예술가들의 태도와 시간을 영상으로 담아냈다.

「호남 예술인 아카이브」는 시민들이 지역 미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기록아카이브에서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창이자 기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대 광주 학교이야기」 광주시 교육청 기증식 개최

2월 20일(금) 재단은 광주 교육의 근현대사를 집약한 기록물 「근대 광주 학교이야기」 400권을 광주시교육청에 기증했다. 기증식에는 노경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류영국 연구소장, 임선화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들과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등 광주시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근대 광주 학교이야기」는 학교라는 공간을 매개로 광주 교육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그 안에 축적된 일상의 기억을 입체적으로 복원한 첫 종합 기록물이다. 이번 기증은 교실과 운동장에 커켜이 쌓인 시간을 미래세대와 공유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광주 교육의 뿌리를 전함으로써 학교가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세대 간 기억을 잇는 공공의 자산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들탑 강좌와 답사 (26.01.05~26.03.10)

1월5일(월)에 시작된 천득염 이사의 〈보여주고 들려주는 불탑이야기〉 강좌가 3월 10일(화) 부여 정림사지, 익산 미륵사지, 익산 왕궁리 답사로 마무리되었다. 7강좌와 답사로 이루어진 보들탑 여정에는 약 15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천득염 이사의 헌신 및 평생에 걸친 연구와 시민의 열정, 선한 기업의 연대 그리고 재단의 봉사로 만들어 낸 〈보여주고 들려주는 불탑이야기〉. 한 땀 한 땀 모여 우리 지역만의 새로운 '지식의 탑'을 세운 순간이다.

제1차 정기이사회 및 전체임원 연석회의 개최

3월 11일(수) 마한자홀에서 2026년 제1차 정기이사회 및 전체임원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감사보고서와 2025년 사업 및 결산 보고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2026년 사업 및 예산 승인, 재단 임원 선임, 재단 적작물 관리 건이 상정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열일곱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 완도편

5월 15일(금) 완도 일대에서 17번째 1차 지역문화교류마당이 열렸다. 시민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지역문화교류마당은 김덕진 광주교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충무공유적, 이도재공적기, 이광사 소나무, 이광사 유배지, 신지항일운동기념공원, 완도타워를 탐방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지역문화교류마당의 주제는 '왕과 못 사는 남자'이다.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유배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물과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과 해설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해 기획되었다.

열일곱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 해남편

5월 22일(금) 해남과 강진 일대에서 17번째 2차 지역문화교류마당이 열렸다. 신동주 조선대 교수와 함께한 이번 지역문화교류마당은 고산 윤선도 유적, 대흥사, 해남윤씨 영모당, 강진만 생태공원을 탐방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왕과 못 사는 남자' 해남편에서는 해남윤씨 15대 종부님과 종손을 직접 만나 뵈며 풍성한 답방이 진행되었다. 호남 지역의 유배지 탐방으로 기획된 지역문화교류마당은 시민들에게 호남 유배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민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2026 광주 인문·예술·테크 페스티벌 〈로컬:뿌리다〉

5월 30일(토) 5·18민주광장에서 로컬:뿌리다 「인문·예술·테크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올해 축제는 '통합'을 주제로 인문, 예술, 기술이 만나 세대와 지역, 국적의 경계를 넘어 함께 소통하는 문화의 장을 만들었다. 로컬 라이브 드로잉, 로컬 오픈마이크, AI댄스컵 등 융복합 공연을 통해 광장은 단순한 관람 공간이 아닌 시민들이 함께 기억을 만들고 문화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채웠다.

회원소식

김상윤 고문 |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50년 동안 흔들리며 배운 세상-나의 소박한 운동사」 출간

김상윤 고문이 시민운동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회고록 「50년 동안 흔들리며 배운 세상-나의 소박한 운동사」를 출간했다.

김덕진 전 이사장 |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정해왜란 1587」 출간

김덕진 전 이사장이 350년에 걸친 한일 관계의 흐름과 변곡점을 담은 「정해왜란 1597」을 출간했다.

박신영 부이사장 | 국제PEN광주위원회 이사장

「국제PEN광주」(23호) 발간

박신영 부이사장이 「국제PEN광주」(23호)를 발간했다.

김경한 부운영위원장 | 이야기브릿지 대표

제11기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위원장 선출

김경한 운영위원이 제11기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강대선 회원 | 시인

첫 디카시집 「추억나비」 발간

교사이자 시인으로 활동하는 강대선 회원이 첫 디카시집 「추억나비」를 발간했다.

이용섭 회원 | 前 광주광역시장

부영그룹 신임 회장 선임

이용섭 회원이 부영그룹 신임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김영술 회원 |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광주NGO시민재단 제5대 이사장 선출

김영술 회원이 광주NGO시민재단 제5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김성진 회원 |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취임

김성진 회원이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성화 회원 |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2025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임성화 회원이 2025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한희원 회원 | 한희원미술관장

골든아티스트어워드 올해의 작가상 대상 수상

한희원 회원이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의 '2025 골든아티스트어워드' 올해의 작가상 대상을 수상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회원

15년 이상

강경희 강정민 고영주 국형렬 김병기 김선주 김옥렬 김원중 김윤기 김 인 김재수 김종영 김현희 김효삼 남택송 백수인 서희석 설영재 송광룡 신호상 양혜령 오권진 이기훈 이명자 이병선 이선욱 이승재 이재석 이창권 이형완 정민호 조성식 최광은 최영태 최은영 최정동 한희원 허 진

10년 이상

강 권 곽규호 권수용 김광욱 김 성 김임미 김영순 김인태 김종필 김흥조 박강배 박상호 백승현 송윤순 신재호 신중남 염낙귀 오미란 오형근 유병연 윤만식 윤태병 이대성 이상배 이상호 이선희 이지은 이창준 임종채 장성훈 정성구 정정례 조병갑 조영임 진시영 천금명 천득염 최주영 최 현 최현택 한정희 한주연 황병하

5년 이상

강신겸 구용기 김기곤 김명술 김병균 김병완 김성환 김용구 김용철 김은영 김일중 김재철 김혜선 김혜영 노성태 박대수 박범진 박신영 박종찬 박철주 송진희 신장용 안태선 안평환 양금숙 양동희 유방실 유우상 유정훈 이양재 이지호 이효원 임상봉 정광민 정성국 조광철 조영오 주정민 진동희 최광희 최희용 한 선

5년 미만

㈜열린기획 강대선 강민구 강성묵 강지나 김경민 김광일 김길남 김남효 김도균 김득환 김미애 김민표 김범태 김병내 김병희 김석중 김성례 김성진 김성환 김여정 김영광 김요성 김윤아 김 은 김점진 김 진 김진홍 김태암 김호균 김홍근 나대승 나종대 노경수 류가림 류창선 문영태 문정우 박가영 박동기 박동훈 박미선 박선미 박철수 박태균 박현수 박현숙 박희자 변옥석 서영원 신민용 신용주 신정미 신정호 신형하 심연희 양천석 엄도영 유봉순 윤명국 윤상호 윤소영 이건상 이경섭 이국언 이다빈아 이동희 이묘숙 이상이 이승남 이승준 이영숙 이영희 이용섭 이윤서 이해영 이현식 이혜숙 임선화 임성화 임혜영 장선정 장일준 장호준 정 권 정영석 정용택 정은영 정정숙 정제문 조수빈 조정기 조진영 주종화 채종훈 최갑동 최금천 최미정 최유진 최혜란 하광미 하성흠 하유담 한병인 한석봉 허영일 홍도석 홍종의

특별회원

구종윤 길광채 김국웅 김나복 김남수 김민정 김병연 김상윤 김 성 김성신 김성현 김연경 김영기 김영주 김영집 김원중 김윤기 김정숙 김종근 김하림 김향득 김현대 김 환 노금선 류재한 마형렬 문병란 박신정 박순보 박신영 박홍석 반상진 박주현 백형주 서영원 서정남 안순일 안종일 안진오 양명희 양형렬 양혜령 오형근 우운택 우제길 윤재국 윤태원 이계원 이근재 이상식 이정룡 이화성 임내현 임상봉 임성복 장기영 장두석 장휘국 정규철 정대영 정동년 정찬용 정태정 정현애 정환상 조원탁 조익문 지병문 지형원 차일헌 차종순 천득염 최무진 최병관 최병근 최선령 최영준 최희용 허성관 허 정 홍경표 황병하 황영성

신규회원
(2026년)

구현희 김병규 김순곤 김숭열 김영자 김항순 김현자 김현희 노명균 류 진 류화승 문수현 박수정 박영희 박은숙 배혜원 심재윤 양인자 오형근 윤미혜 이상민 이애심 이영란 이예진 임형택 정만기 주 광 주 덕 최영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

역대 이사장

1대 | 안진오(전남대학교 명예교수)
2대 | 오병문(제33대 교육부 장관)
3대 | 허성관(제6대 행정자치부 장관)
4대 | 문병란(조선대학교 명예교수)
5대 | 백수인(조선대학교 명예교수)
6대 | 김덕진(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이사회

이사장 | 노경수
부이사장 | 김양균 박신영
상임이사 | 김윤아
이사 | 국형렬 김대현 김민표 김 성 김혜선 노성태 류영국 박요주 박종찬 박주현 이기훈 천득염 최갑동
감사 | 윤만식 최회용
고문 | 김상윤 백수인

후원이사회

회장 | 최갑동
부회장 | 국형렬 유 석 이영숙
후원이사 | 김영광 김용혁 김홍근 이묘숙 이현식 정광민 조진영 최미정 최형주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 김민표
부운영위원장 | 김경한 김혜선 조수빈
운영위원 | 김기곤 김병희 김성환 문복주 박주현 신웅주 윤준혁 양인자 이상준 정성구 진시영 최재영

연구소 기획위원회

연구소장 | 류영국
기획위원 | 김광욱 김원중 이건상 이동희 이향준 임선화 정성일 조광철

창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송재환
편집위원 | 양인자 이묘숙 이현식

재단 사무처

상임이사 | 김윤아
사무국장 | 이지호
간사 | 박가영

기본교육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더 큰 교육, 더 다양한 미래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

2026. 7. 1. 통합특별시로 새로이 시작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하나되어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교육행정통합이란?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정책과 기능 등을
통합하는 것

추진 방향

협력과 상생

효율과 혁신

아이 중심

기능별 주요 통합 분야

교육정책

교육과정

재정·예산

정보시스템

하나 되어 달라질 모습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과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교사·학교에는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교육환경 조성

지역사회에서는
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기반 마련

국가 미래에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교육 실현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산업시설용지(제조, R&D, 복합, 유통) 및
단독주택용지 상반기 분양예정

- ☑ AI집적단지, 국립심혈관센터 등 국정과제 수행 AI기반 복합단지
- ☑ 약 8천세대 주택건립 계획으로 뛰어난 직주근접
- ☑ 호남고속도로, 국도1호선 및 13호선 등 광역교통체계 구축
- ☑ 인근 광주과학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등 23개 생산기술 연구기관 집적효과
- ☑ 첨단국가산단(1,2지구), 하남, 진곡, 나노산단등인근 산단 시너지 효과

분양문의 : 062)600-6661 ~4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 GJFEZ 전라남도 Jangseong INNOPOLIS